

해외 현장 연구 개인에세이

영어영문학과 김대환 201421621

들어가며

해외현장연구라는 수업을 수강하게 된 것은 매우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수업 수강신청을 시작하기 전 지원서 작성부터 면접에 이르기까지 해외에서 연구를 하고 보고서를 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설레는 마음을 지니고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통상을 복수전공하는 학생으로서 해외에서 진행하는 연구는 전공에 부합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 부딪히며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수업을 시작했을 때에는 팀원 선정에서부터 연구주제 선정까지 어느 것 하나 순조롭게 진행되었던 것은 없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원하던 주제로 끝까지 진행하는 것이 좌절되기도 했고 심지어 베트남은 제가 원하던 연구 대상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수업을 시작할 때 생각했던 설레던 마음을 기억하며 팀 선정과 연구주제 선정 이후 새로운 각오로 베트남에 대해 알아보고자 노력했습니다.

수업 초기 연구 주제 변천사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이병호 교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 4주 간 보고서 작성법과 연구국가 선정과 연구주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저희는 매주 약 2개 정도의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해외현장연구에 있어서 중요했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해외현장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연구 국가와 연구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전체 보고서 작성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수업 초기에는 보고서 주제에 대해 선정하고 주제에 대해 자료조사를 하는 것부터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이러한 수업을 과거에 진행해 본 적도 없었고 교수님께서 주제를 직접 제시해 주시기 보다는 학생들이 가져온 주제에 대해서 보완할 점이나 연구 주제가 현실적일 것인지에 대해서만 덧붙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 이러한 부분이 이 수업의 매력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의 발표와 의견으로 수업을 채워 나가며 자신의 연구 주제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의 연구 주제를 함께 살펴보면서 자신이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수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해외현장연구를 통해서 해보고 싶은 연구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남아시아 할랄 푸드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먼저 저는 지난해 김용기 교수님의 '동남아시아 입문' 수업을 수강하고 그동안 자세히 알지 못했던 동남아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몸소 동남아에 대해 알아보고자 지난 겨울 학교에서 진행했던 단기파견으로 인도네시아에 다녀온 바 있습니다. 이후 저는 인도네시아 학생들을 통해 동남아시아에서 한류의 인기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무슬림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둘을 결합시켜 국제통상과 관련된 연구를 해 보고자 할랄 화장품과 K-뷰티의 동남아시아 진출을 주제로 연구해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팀원과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할랄이라는 주제를 계속 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 위구르 등 무슬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연구 대상지역으로 선정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안전문제로 인해 제외되었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숙소, 비행기 티켓 등의 비교적 높은 가격으로 선정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중국 위구르는 수강생들 사이에서 선호되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저는 연구 대상 국가와 연구 주제 선정에 대해 조원들과 함께 타협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한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단 할랄에 대한 연구는 국가 선정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포기하기로 하고 한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한식당의 해외 진출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조원들과 함께 한류 마케팅과 한식당을 주제로 베트남에서 연구를 진행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주제 선정 이후 계속된 주제 수정

가장 초기의 주제는 한류 마케팅과 중소 요식업체의 베트남 진출로 정하고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사와 수업 중 발표 이후 한류 마케팅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와 중소 요식업체의 타겟에 대한 부족함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후 저희 조에서는 베트남 외식시장과 한식당 현황에 대해 조사를 하는 과정을 거치며 피드백에 대한 보완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코트라 베트남 지사의 해외시장동향 연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하노이지사의 수출 뉴스 등을 살펴보면 베트남은 현재 가파른 경제성장과 함께 외식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특히 젊은 인구구조로 인해 그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류의 영향을 받은 베트남 20대와 30대가 한국 음식을 소비하고 있고 이들이 Youtube와 Facebook 등 SNS에 게재한 한국 음식에 대한 게시물이 비교적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조는 한류 마케팅의 대상을 베트남 20~30대로 정하고 베트남의 한식당 진출에 대해 방향을 선회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용기 교수님과 면담을 하게 되었고 연구 주제에서 한류의 구체화에 대한 피드백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방탄소년단 전과 후의 베트남 현지 조사나 박항서 감독 전과 후 변화에 대한 현장 연구를 하면 더 좋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조에서는 방탄소년단 보다는 박항서의 인기가 베트남 내에 더 많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박항서 영향에 따른 베트남 내 한식당 소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병호 교수님께 연구 대상 모집단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모집단에 대해 조원들 스스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지만 수업 중 교수님의 피드백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조사 대상이 베트남인들 중 한류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한식당을 이용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모집단을 조사할 경우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

니다.

연구 대상 섭외 과정

이렇게 연구 주제에 대해 방향을 잡은 후 연구와 관련된 자료 수집을 하기 위해 연구를 크게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인터뷰 대상에 대해 논의한 결과 국내에서는 베트남 관련 전문가, 교수, 베트남인 한국 유학생 등을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지에서는 하노이 대학교 교수, 세종어학당 학생, 한식당 사장, 하노이 특파원 기자 등을 인터뷰 대상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저는 마케팅과 관련해서 현재 박항서 감독을 모델로 기용하고 있는 신한은행, 동아제약의 박카스 담당자 등을 인터뷰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답장이 오지 않아 인터뷰하는 데에는 실패하였습니다.

저 뿐 아니라 같이 연구했던 팀원들 모두 이번 연구를 통해 인터뷰나 설문조사를 처음 진행했기 때문에 연구 대상을 선정하고 요청하는 데 있어 그 시작부터 막막함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해외현장연구에 대한 도전정신을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 연락처부터 구하였습니다. 우선 연구 대상 섭외를 위해 제가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삼촌께서 수원 망포에 위치한 베트남 쌀국수를 운영하고 계셔서 해당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 인터뷰나 설문조사 프리테스트를 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인터뷰 요청을 하였고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현지 인터뷰와 설문조사에 대해 이메일 요청을 보낼 때 저는 이메일 번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영어영문학과가 전공이기 때문에 기존 수업시간에 배웠던 것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대학교 한국어과 교수님께 이메일도 보내 보고 세종 하노이 한국어학당에도 영어와 함께 한국어 메일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이메일 답장이 올지에 대해 큰 걱정을 하였고 제가 영어로 번역한 것이 잘못되지는 않았을까 우려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일주일 안에 답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종 어학당에 설문조사 요청을 하였는데 가능하다는 답장이 왔고 구체적인 날짜와 저희가 만든 설문 내용을 보내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하노이 대학의 한국어과 교수님께서도 답을 보내오셨으나 저희가 현장연구를 진행하는 기간동안 출장을 나가 어렵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무언가를 진행할 때 하기 전부터 걱정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연구 초기에는 이메일을 보내면 답을 받을 수 있을 지부터 이메일 내용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정말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베트남이나 국내 전문가들에게 연락을 시도한 결과 약 50% 정도는 답을 받을 수 있었고 그 중에서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쓸 수 있는 자료를 얻게 되었습니다.

현장 연구 비하인드

베트남 하노이로 출국하기 전 이미 하노이 세종 어학당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섭외를 약속을 잡은 상태였고 일정도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구글 지도

를 따라 하노이 대학 내에 위치하고 있는 세종 어학당에 도착했을 때 건물은 자물쇠로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저희 조는 연구 계획이 틀어지는 것이 아닌지 생각을 하기도 했고 저는 플랜 B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플랜 B는 한식당을 둘러 식사를 하고 있는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존의 계획보다는 시간이 더 오래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영업장 내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장님의 거부에 가능성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옆 사무실에 문의한 결과 방문했을 당시는 점심시간으로 문이 닫혀 있었던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놀란 가슴을 쓸어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노이 세종학당>

베트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어학당 선생님의 도움으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 선생님께서 반갑게 저희들을 맞이해 주셨고 다른 수업의 베트남인 한국어 선생님께도 저희들을 소개시켜 주며 학생들에게 저희 연구 목적과 설문조사에 대해 통역을 도와주셨습니다. 답례품으로 한국에서 준비한 작은 볼펜을 선물하였는데 생각 외로 베트남 학생분들께서 만족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볼펜은 여러가지 후보 중에서 제가 직접 찾고 후보로 올린 볼펜이 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설문조사를 진행한 후 어학당 한국어 선생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한가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베트남 학생들과 한국어로 대화를 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저희는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하였고 그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생각 외로 베트남 학생들이 부끄러움이 많아 수줍음에 질문을 잘 하지 못했고 결국에 질문 2개 정도를 받았습니다. 베트남에 몇 번 방문했는지 좋아하는 베트남 음식은 어떤 것인지 등이었습니다. 이후 자리에 앉아 한국어로 간단한 인사말을 나누며 그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어서 그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해 아쉬웠고 그들이 한국어 인사로 맞아줄 때 정말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한인타운 한식당 사장 인터뷰에서는 인터뷰 지역 선정을 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습

니다. 5군데 정도의 한식당을 방문했지만 대부분 식당 내 종업원들은 베트남인들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어가 잘 통하지 않아 인터뷰가 어려웠습니다. 팀원들을 둘로 나눠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다 겨우 한군데를 찾아 인터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인터뷰를 요청하기 전에는 점심시간을 피해 간다고 했으나 예상외로 손님이 많아 민폐가 될까 봐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 한국에서 왔다는 친절한 맞이해 주셨고 인터뷰에 친절하게 응해 주셨습니다.



<한식당 청기와 사장님과 함께>

마치며

해외현장연구는 저에게 있어 기존 수업과는 다르게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현장연구 이전 학기중에는 수업을 학생들이 직접 이끌어 나가며 스스로 연구 방법과 내용에 대해 배워 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수업을 통해 보고서에서 쓰일 인터뷰와 설문조사 등을 처음 진행해보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경험이 다른 수업이나 사회에 나가서도 잊혀지지 않고 쓰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준 학교와 교수님 그리고 팀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